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7) 만공 스님의 음담패설 법문

불성이란 말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성이란 바로 지금 역력한 '생명'의 불가사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단순한, 그러면서도 신비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사태이므로, 하등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태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있음'의 기적과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성은 내 생명의 등불
제가 불성이라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물건을 지금 턱없이 뻥한 일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화를 내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듣기로는 경성(見性), 즉 '불성을 본다'는 것은, 수역검에 걸친 운회를 거치며 수행을 하거나, 또 아니면 수십년을 토굴에서 화두를 들고서야 겨우 열리는 희귀한 소식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돈교(頓敎)는 이런 타성적 '엄숙주의'에 대한, 그리고 이런 '점진주의'에 대한 벽력같은 고타소리로 출발했습니다. 돈교는 지금 우

리가 서 있는 자리 너머에, 깨달음이나, 구원이나, 법계나, 정토나가 결코 없다는 사자후입니다. 돈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절대'임을 그토록 간절히, 진절하게 일깨워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일만 열면 할, '깨달음' 바도, '열' 바도, '설' 할 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쳐다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너무 심심한 나머지, 우리는 '그 밖에' 더 크고 위대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목을 길게 뻗는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왜 반야와 화엄과 기신, 그리고 선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을, 그 고구정녕의 지시(指示)를 곧이 들으려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선사 조주가 '차 한잔 들게'라고 한 말에는 아무런 신비나, 형이상학이나, 배면에 숨긴 함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역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모두 자를 풀고, 따르고 마십시오. 그게 '이 어야 할'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따로 '의도적'으로 할 일도 없고, 따라서 '성취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남도 또한 '이 모두'를 이미

갖고 있으니, 새삼 설파해 줄 것도 없습니다. (不可知, 不可得, 不可說!)

저 산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너무 앞질러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반야'를 다루는 강의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떠오르는 얘기 한 자락을 해 놓고 가려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조태호씨의 '주장자따라'라는 만화

힘겹게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구멍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너무 쉽겠지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게 어렵습니다.

왜 눈 앞에 역력(歷歷)한 이 단순한 '생명'의 적나라(赤裸裸)를 바로 보기 어려울까요. 그 장에는 밖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습니다. 불교란 다른 아니라, 바로 이 '안의' '적'을 대적하고 물리쳐 실제(實際)를 만나게 해 주려는 방법적 장치들이자, 그들을

이 장애물들은 인간 속에 완강히, 그리고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지, 금강이란 바로 이 장애물의 견고함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불교 중에서도, 이 번뇌와 무지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그 형성과 작동의 메커니즘을 본격 다루는 학파가 아비달마와 유식입니다. 반야 중론은 이 문제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지요. 아무래도 '부수어야 할 물건'을 따지느라 힘

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강의 열개는 <대승기신론>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실상을 지금 우리들의 일상적 경험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대체 '번뇌'와 '무지'의 실상을 알아야, '반야'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불교의 기획은 '불성'과 '번뇌', 그리고 '반야'의 삼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육조 혜능은 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불성안에 지혜 공장(工匠) 있다”

입니다. 어느날 여기 음담패설이 하나 실렸습니다. 드물게 스크랩해둔 것인데, 만공 스님(1871~1946)의 일화입니다. 때는 한말에서 일제 초기, 몰락한 궁중의 상궁 내인들이 스님을 찾아와 법문을 청했습니다. 스님은 법문을 않고 뜬금없이, 노래 한 자락을 읊었습니다. “저 산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집 명당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여허, 이런 해괴한...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자리에 앉았던 여인들이 구석구석에서 킁킁거리고 속닥거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웃고 제스니까, 저는 아직 이처럼 기가 막힌 절창, 독창적인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조갯살을 열어보여 주셨는데, 그런데 여인네들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늙은 스님이 하시는 아슬아슬한 음담패설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나무를 따로 다시,



가득 쌓아둔 곳간(藏)입니다! 여기서 '안의 적'이란 바로 '번뇌'와 '무지'를 가리킵니다. 이 장애를 부수는 것이 반야인데, 반야를 말하기 전에 이들의 본색을 알아야겠지요. 지금부터 몇 회에 걸쳐 이 문제를 본격 다루겠습니다.

철광을 제련하여 순금을 얻는다 앞에서 영약장으로 비유된 바 있듯이,

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원효는 아비달마와 유식이, “세우느라 부수지 못한(立而不破)” 폐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된 마음’의 분석과 분류에 치중하느라 ‘번뇌와 무지의 소멸’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피해가서는 안된

“금은 산중에 있다. 그러나 산은 제 속에 이런 보물이 있는 줄을 모른다. 보물도 이게 산인 줄 모른다. 왜냐. 불성(佛性)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불성이 있어, 그 보물을 이용한다. 금의 전문가를 만나 산을 뚫고 깨서, 광석을 캐내, 그것을 제련하여, 순금을 얻어, 이것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가난과 궁핍을 면한다. 사대(四大)로 된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 또한 그러하다. 여기 '몸(身)'은 세계(世界)에, 인어(人)는 산(山)에, 번뇌는 광석(石)에, 불성은 금에, 지혜는 제련공(工匠)에, 정진(精進)은 (그 광석을) 뚫고 캐는 일에 비유된다. 몸(身)의 세계(世界) 가운데 인어(人)의 산(山)이 있고, 인어의 산 가운데 번뇌의 광석이 있다. 번뇌의 광석 가운데 불성의 보물이 있고, 불성의 보물 가운데 지혜의 제련공(智匠)이 있다!” 지혜의 제련공을 써서, 인어의 산을 깨고 뚫어, 거기서 번뇌 광석을 보고, 이를 깨달음의 불로 제련하여, 거기 금강불성(金剛佛性)이 분명히 명징(明淨)하게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이 경(經)의 이름을 금강에 빗대어 짓게 되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완규 스님의 '달'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Key dialogue includes: '완규스님 새벽에 일어나셨나? 공양하셨나?', '기자분이 오셨습니다', '스님 도를 깨칠려면 불교를 꼭 믿어야 하는지요?',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면 불교도 믿고', '불교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도 믿고', '하루 2시간 놓고 묵언은 10년재요', '자. 수많은 물그릇에 비유는 달은 하나...', '스님 잘알겠습니다', '스님 무슨 보따리를 아무것도 아냐', '배고프지 말고 드세요', '내가 속세의 옷을 벗은 때가 되었구나', '정정하시는데 벌써 가시려', '인식들이 수행자는 기교를 떼고 분별해야 돼', '처지동자 같은 모습인데', '후학 법문때는', '그럼 저희들은 무엇에 의지 합니까?', '그야 부처님 밖에 의지하면 되지', '탁구공보다 쉽게 탁구', '목침', '영터리 수행자!', '후학들에게 한 말씀', '부처님 조사가 다말했잖아', '영반', '스님', '빙그레'

완규 스님(1896~1984): 충남 부여 생. 용성 스님을 은사로 칠불암에서 득도. 송광사, 망월사, 상원사 등 전국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백양사 등 많은 선원의 조실로 남자들 제법함.

네티즌 교리문답 '大道無門'의 출처와 뜻은?
김영삼 前 대통령이 자주 쓰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이란 휘호가 선어록에 나오는 말이라 들었습니다. 출처와 뜻을 알고 싶습니다. (D '종로구민')
답1: "대도무문(大道無門) 천차유로(千差有路) 투득차관(透得此關) 건곤동보(乾坤動步)". 송나라 선승 무문혜개(無門慧開)가 선의 화두 48칙(則)을 모아 펴낸 책 <무문관(無門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큰 길에 들어가는 문은 없으나 그 문은 어떤 길로나 통한다. 이 길을 잘 지나면 그는 천하를 홀로 걸으리라." ('출처는 여기')
답2: 대도는 문이 없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문(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대도인 것이다. 삼라만상 사방삼세가 모두 도인 것이다. 하나의 고정되고 정해진 문이 나 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가 모두 문이다. 중도(中道)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 '대도 무문'이란 말은 단지 출입의 문이 없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입이 있으나 출입에 떨어지지 않고 대도를 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세계를 보도록 하는 말이다. 우리들 인생의 모든 삶은 이 문없는 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성본스님 역 <우문관> 참조) (대도무문)
답3: 여기에 문 없이 큰 도가 있으니 문이 없는데 들어가 길이 없는데 가는 고로 대도(大道)라. 막힘도 통함도 없고, 밝음도 어둠도, 거룩함도 평범함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으며 늙고 젊음의 구별 또한 없다. 나와 나의 경계가 없을뿐더러 선과 악의 나눔이나 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의 시비도 있을 수 없음이니 이를 일러 '길 없는 길은 간다' 함이라. 문 없는 문을 들어서고, 길 없는 길을 걸은 '걸림이 없는 마음'이 그 열쇠인데,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에도, 정신에도 구애받지 않으니, 두 마음의 경계가 무너진 상태를 뜻합니다. 물질의 본질을 알고 보면 물질이 아니요(色則非色), 정신도 그 본질을 캐보면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닐진대(空則非空), 공연히 인간들이 천만 가지 계계를 짓고 부질없는 이들을 붙여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시비를 하지만, 티끌만큼도 치우침이 없는 것이 걸림 없는 마음이다. (래론)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푸성귀를 다듬을 때 골라놓은 곁대
2. 뼈를 가루로 만들고 몸을 부순다는 뜻으로, 정성으로 노력함을 이르는 말.
3. 시력교정 수술방법 중 하나
4. 신호 목적으로 길게 내는 기적 소리
5.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에 뜻하는 사자성어
6. 압구정 동이란 동명의 기원이 된 전자, 한평화가 지었다 함.
1. 30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며, 이 꽃이 피면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꽃
2. 공유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일컫는 말
8. 궁계 마야바림
9. 큰방 뒤쪽에 달린 작은 방
10.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치면 북
11. 식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12. 중국 동북지역의 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 명칭
13. 나라를 피해감
14. 형의 아내
15. 위력으로 상대방의 기세를 누름.
정답은 20면에